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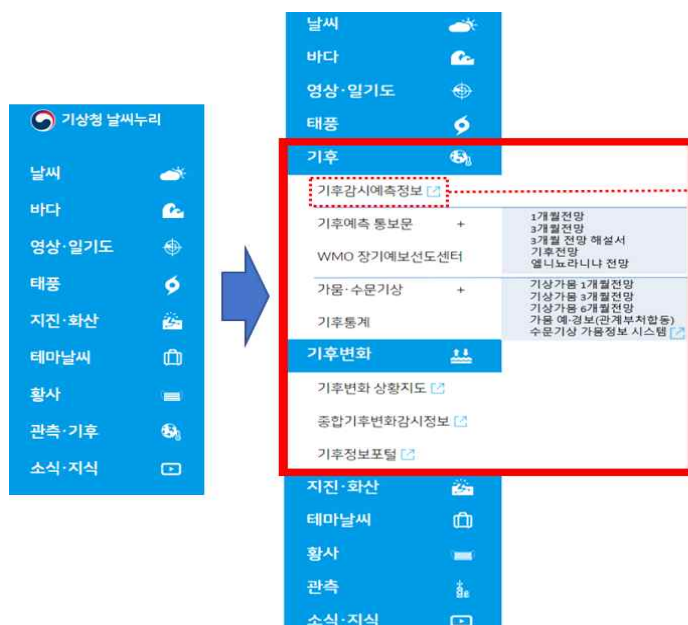
기후감시 자료를 한눈에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개시

- 한반도~전 세계, 지상~고층까지 기후감시 및 기후예측모델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기관으로서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현업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6월 27일(목)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상청 날씨누리를 개편, 첫 화면에 ‘기후’ 메뉴를 배치하여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편 이전>



<개편 이후>



* 들어가는 방법

- 1 기후감시예측정보(www.kma.go.kr/cpd/)
- 2 날씨누리(www.weather.go.kr) > 기후 > 기후감시예측정보
- 3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 기후분석·예측 > 기후예측 > 기후감시예측정보

한반도에서 전 세계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후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극해빙, 해수면온도 등 전지구 차원의 기후감시 요소도 제공한다.

한반도(남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경향 파악을 위해, 일·주·월·계절·연별 시공간 평균, 편차(평균-평년)뿐만 아니라 이상고온·저온 현황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기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위도 북극과 저위도 열대해수면, 대륙 상태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 기후감시 요소*와 북극해빙, 엘니뇨·라니냐 현황을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북극 진동(AO, Arctic Oscillation), 북대서양 진동(NAO, North Atlantic Oscillation) 등

한편, 기상청에서 1·3개월 전망을 생산하기 위해 현업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자료(GloSea6)*를 지상에서 상층(상공 약 12km)까지 고도별로 표출 서비스함에 따라, 기후예측 학계와 연구계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GloSea6(Global Seasonal Forecasting System, version 6)

1·3개월 전망이 발표됨과 동시에 주별(미래 한 달까지), 월별(미래 3개월까지) 기후예측모델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지도 도법을 반영하여 전 세계 기온, 강수, 바람 및 지상~상층의 지위고도 편차를 관측자료와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연계하여 표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음새 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발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직접 기후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기후감시와 예측에 관한 관심 증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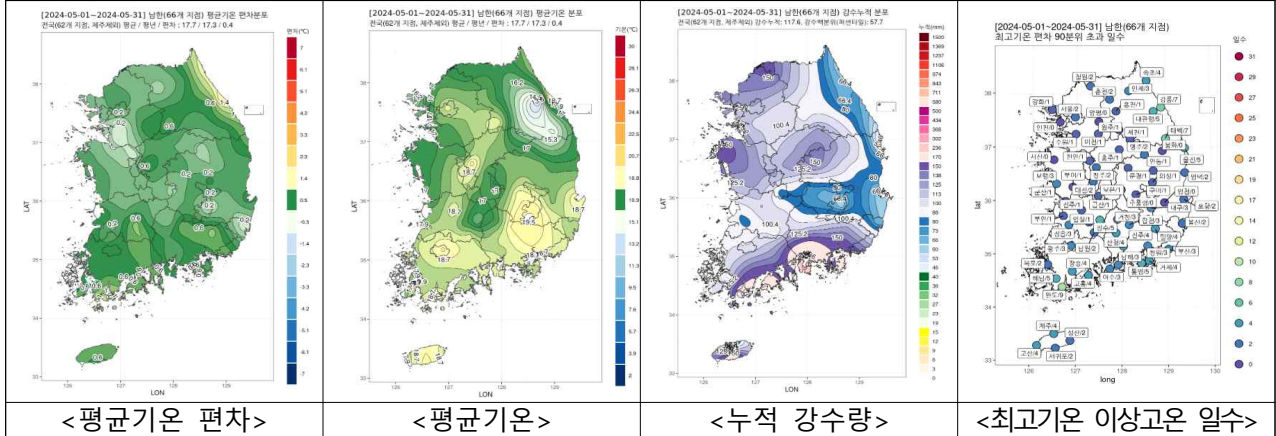
붙임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예시)

담당 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책임자	과 장	조경숙 (042-481-7390)
		담당자	사무관	최철운 (042-481-7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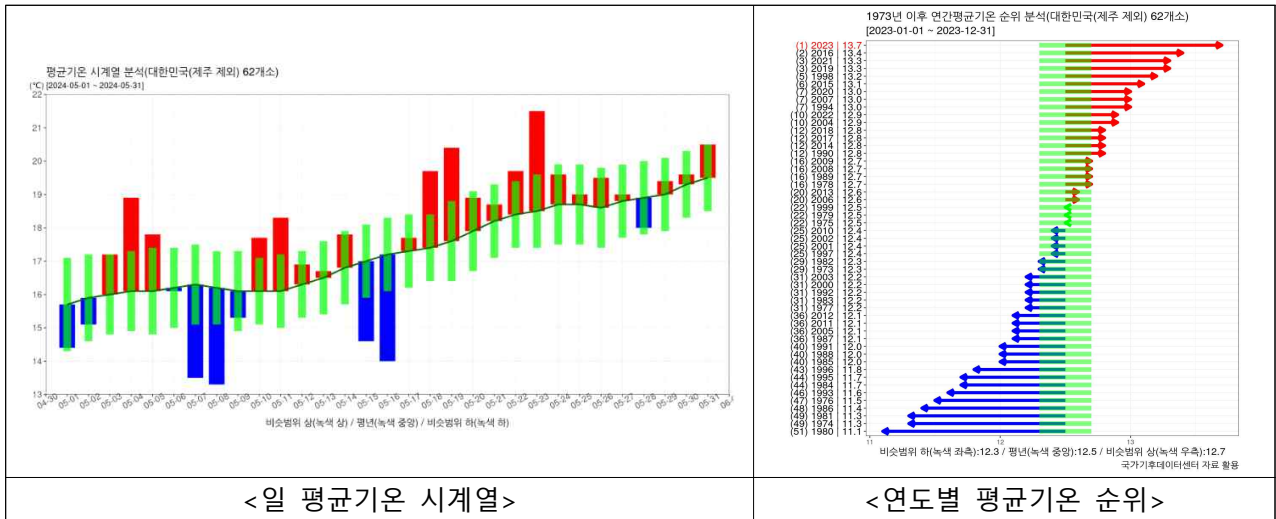


□ 한반도: 관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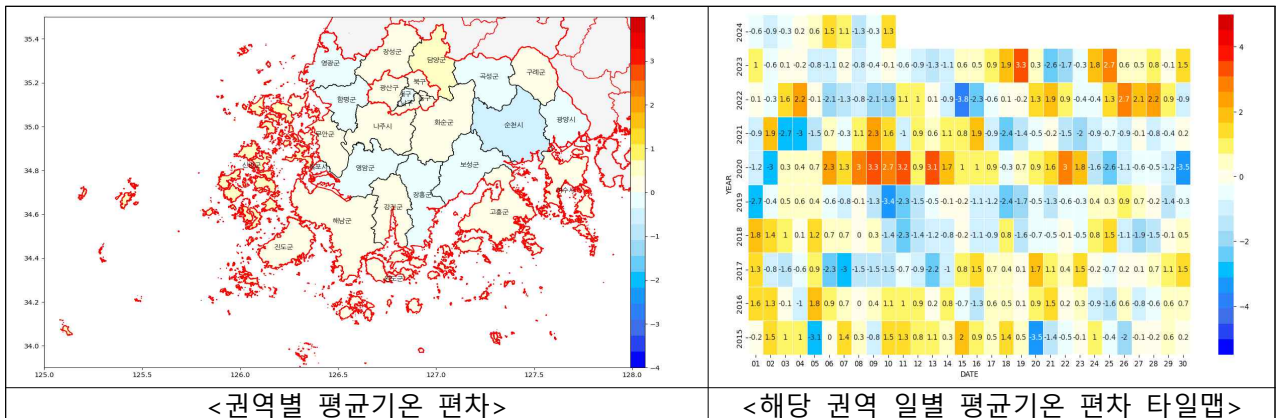
○ (월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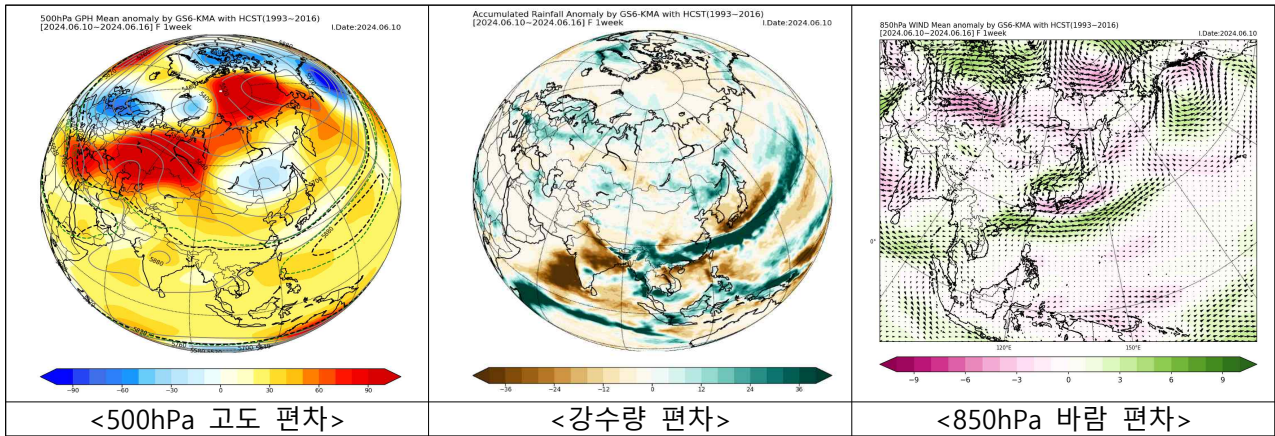
○ (시계열 및 순위)



○ (권역별 분포도)



□ 전세계: 기후예측모델 결과



□ 기후감시: 기후인자, 북극해빙, 엘니뇨·라니냐

